

시민중심 민생의회
신뢰받는 소통의회



울산시의회

사람들

2026 JULY 통권 제134호



울산광역시의회
ULSAN METROPOLITAN COUNCIL





표지이야기
강동 화암 주상절리 여명 및 일출

제9대 의회의 힘찬 여정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22년 7월 1일 임기를 시작한 제8대 의회가 2026년 6월 30일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임무를 종료합니다.

지난 4년간 시민을 위해 혼신을 다했고, 울산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시민중심 민생의회, 신뢰받는 소통의회’라는 슬로건에 부끄럽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와 결실도 있지만, 멀리 내다보며 알차게 기반과 토대를 마련한 것도 많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을 뿐이지 머지않아 시민과 울산에 긍정적 에너지를 안겨줄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물론, 모든 것을 잘했다고 자신하거나 확신할 순 없습니다.

실수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을 것입니다.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또한 앞으로 나아가는 지렛대와 디딤돌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실수에서 배우고, 실패에서 교훈을 얻는다면 반복적인 실수와 실패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8대 의회의 바통을 이어 2026년 7월 1일부터 시작하는 제9대 의회가 조금 더 시민과 울산을 위한 완벽한 의회가 되길 바랍니다.

제9대 의회는 새로운 실험과 시험의 무대가 될 것입니다.

의회 다수당과 집행부 수장이 다른 사실상의 첫 번째 실험이자 시험입니다.

처음이라 진통은 있겠지만, 시민과 울산을 향한 마음은 다르지 않기에 현명하게 잘 대처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대안 제시라는 의회 본연의 세 기둥이 더욱 굳건하게 세워지면 시민의 삶은 더 나아지고, 울산은 더 크게 발전할 것입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이어달리기이며, 미래로 가는 징검다리입니다.

제8대 의회가 땀과 노력과 열정으로 쌓은 소중한 역사를 제9대 의회가 잘 이어받아 힘껏 내달리길 기원합니다.

제8대 의회를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과 공직자들,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셨던 시민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리며, 제9대 의회의 힘찬 여정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울산광역시의회 의장 이 성 룡



의장 인사말	4
제8대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현황	6
제8대 울산광역시의회 의회 성과	8
제260회~제264회 상임위·특별위원회 활동	14
결의안	28
5분 자유발언	30
2026년 상반기 서면질문 목록	54
눈에 띄는 조례	56
의정단신	62

제8대 울산광역시의회

중구



권태호 중구1

학성동, 복산동,
중앙동, 성안동



김기환 중구2

병영1동, 병영2동



이성룡 중구3

우정동, 태화동,
다운동



김종섭 중구4

반구1동, 반구2동,
약사동

남구



안수일 남구1

신정1동, 신정2동,
신정3동, 신정5동



이장걸 남구2

신정4동, 옥동



안대룡 남구3

삼호동, 무거동



방인섭 남구4

삼산동, 아음장생포동



이영혜 남구6

대현동, 선암동

비례대표



천미경 비례

국민의힘



권순용 비례

국민의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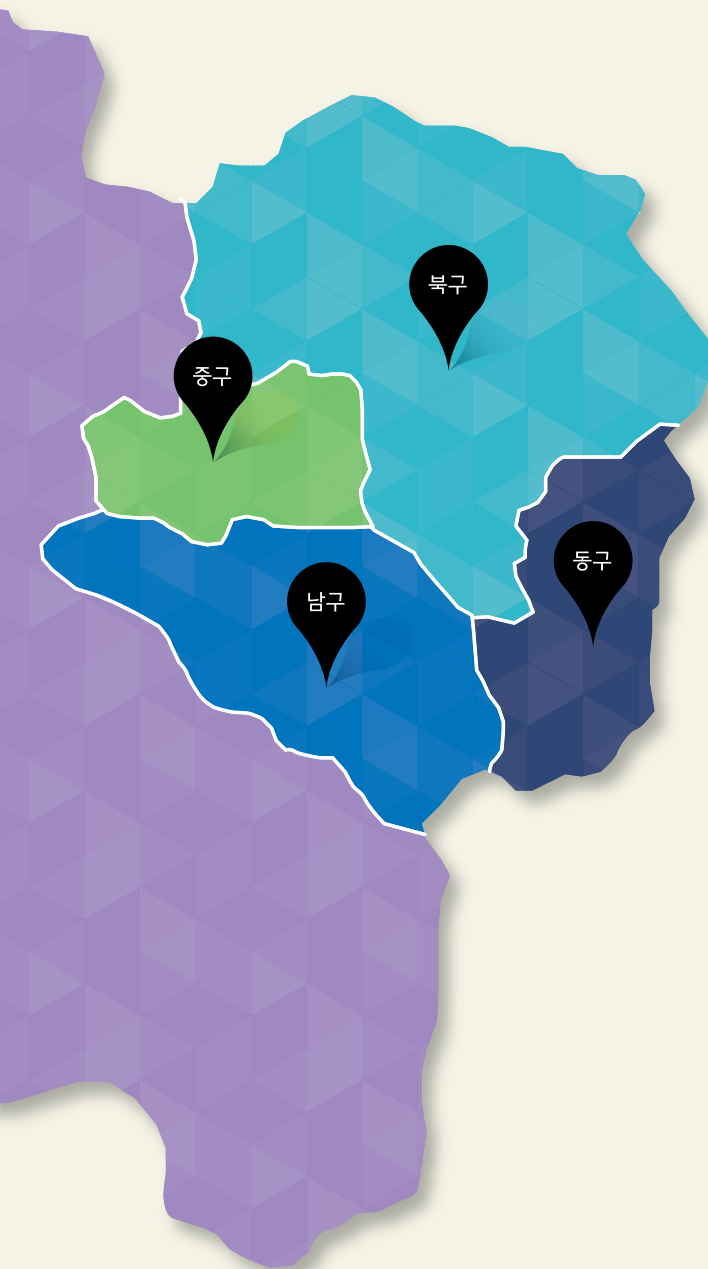


손명희 비례

더불어민주당



의원현황



동구



김수종 동구1

방어동, 화정동,
대송동



홍유준 동구2

일산동, 전하1동,
전하2동



강대길 동구3

남목1동, 남목2동,
남목3동

북구



손근호 북구1

농소1동, 송정동



문석주 북구2

농소2동, 농소3동



백현조 북구3

강동동, 효문동,
양정동, 염포동

울주군



공진혁 울주1

온산읍, 온양읍,
청량읍, 서생면,
웅촌면



홍성우 울주2

언양읍, 삼남읍,
두동면, 두서면,
상북면, 삼동면



김종훈 울주3

범서읍

상임위원회별 성과에 대한 총평

>>>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전반기 위원장 정치락, 후반기 위원장 공진혁)는 제8대 울산광역시의회 개원 이후 4년간 총 122건의 각종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특히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회의 역할과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운영 방향 마련에 의정활동의 초점을 두었다. 먼저, 2010년 이후 유지되어 오던 상임위 소관 사항을 조정하여 상임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울산광역시의회 기본 조례」를 2024년 7월 시행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이었던 문화 분야 6개 부서(기관)를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소관으로 조정한 것으로, 의회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그리고, △지방의원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 방안을 담은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천미경 의원 대표발의), △연구단체 활동의 책임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김종훈 의원 대표발의),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이나 직원의 적법한 직무 수행 과정에서 피소 또는 기소되는 경우 소송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한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공진혁 의원 대표발의), △국내외 지방의회 간 친선결연 등 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울산광역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권순용 의원 대표발의) 등 다수의 조례안을 심사·의결하며 의정활동 지원 체계를 강화하였다.

또한,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논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해 기업민생경제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특별위원회, 꿈의도시 울산 청년과 함께 특별위원회, 원전특별위원회,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총 11건의 안건을 심의하였다.

대외적으로는 시민들의 염원이 담긴 울산 주요 현안 사업을 전국 시도와 공동으로 대응해 관철하고자 대한민국시도 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 총 14건의 안건을 적극 발굴하여 대정부 건의하고 답변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주요 안건으로 울산의료원 건립 타당성 재조사 통과 촉구 건의안, UNIST 과학영재학교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 국가산업단지 관리권 지방자치단체로 이양 촉구 건의안,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 인상 건의안, 지방의회법 제정 관련 지방의회 조직·인력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 등으로, 이를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공론화를 이끌어 냈다.

특히 2024년 1월과 2025년 4월에 울산에서 대한민국시도 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를 개최하여, 전국 시·도 의회 간 공동 현안을 논의하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류하는 뜻깊은 자리를 가졌다.

공진혁 의회운영위원장은 “제8대 의회운영위원회는 변화하는 지방자치 환경 속에서 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심 없이 달려온 시간이었다”며 “그동안 함께 쌓아온 경험과 성과가 제9대 의정활동의 소중한 밑거름이 되어 시민을 위한 더욱 성숙한 지방의정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상임위원회별 성과에 대한 총평

» 행정자치위원회

제8대 행정자치위원회(전반기 위원장 김종섭, 후반기 위원장 이장걸)는 2022년 7월 출범 이후 시민 안전과 지방 행정 혁신,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울산시 주요 현안 해결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자치경찰위원회, 울산시설공단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부서를 소관으로 하며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간담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시민 중심의 정책 대안 마련에 힘써왔다.

임기 동안 조례안 213건(의원 발의 95건, 시장 제출 118건)을 심사하고, 간담회·토론회 177회, 현장방문 73회를 실시하는 등 현장 중심의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을 적극 추진하였다. 위원회는 자치경찰위원회와 온산소방서를 시작으로 울산연구원, 전국체전 경기장, 재난안전대책본부 등 다양한 현장을 방문해 운영 실태와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 방향을 모색하였다.

특히 시민 안전 분야에 중점을 두고 소방본부 특수대응단 및 특수재난훈련센터 방문, 여성안심순찰대 야간순찰, 지하안전관리 강화 방안 논의, 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현장 등을 찾아 재난 대응체계와 생활안전 강화를 점검하였다.

또한 학성새벽시장과 울주군 범서읍 사일마을에서는 비상 소화장치 운영 실태와 화재 초기 대응체계를 점검하며 화재·산불 예방과 골든타임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활동도 활발히 이어졌다. 해오름동맹 광역추진단 방문을 통해 공동협력사업과 해오름산업벨트 지원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논의하였고, 노후·과밀 아파트 재개발·재건축 간담회, 동구 남목권역 119안전센터 설치 간담회, 원거리 통학생 지원 확대 간담회 등을 개최하며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 해결에도 적극 나섰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 심사를 통해 시민 안전, 재난 대응체계, 조직 운영 효율화, 재정 건전성 확보 등 시정 전반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도 충실히 수행하였다. 반복적인 현장 점검과 정책 제언을 통해 예방 중심 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환경 조성과 실질적인 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제8대 행정자치위원회는 시민 안전과 생활 안정, 지역 균형 발전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 등 울산의 주요 현안을 폭넓게 다루며 현장 중심의 실천적 의정활동과 정책 대안 제시에 힘쓴 상임위원회로 평가된다.

상임위원회별 성과에 대한 총평

》》 문화복지환경위원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전반기 환경복지위원회, 후반기 문화복지환경위원회)는 제8대 울산광역시의회 개원 이후 지난 4년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목표로 문화·관광·복지·보건·환경을 아우르는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전반기(위원장 이영해)는 코로나19 이후 위축된 시민 일상 회복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복지안전망 구축에 집중하였으며, 후반기(위원장 홍유준)는 문화관광체육 분야가 새롭게 소관 업무로 편입됨에 따라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관광 경쟁력 강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발굴에 힘써왔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 돌봄체계 고도화, 저출생·고령화 대응 등 시대적 과제를 해결을 위한 정책적 기반 마련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 활동을 수행하였다.

위원회는 4년간 총 203건의 안건을 심사·처리하였으며, 이 가운데 조례안 141건(의원발의 99건, 시장제출 42건), 동의안 49건, 기타안건 13건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민 중심의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썼다. 특히, 청소년·장애인·노인·보훈대상자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복지정책을 비롯해 공공의료 확충, 지역돌봄 통합지원,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지원,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실현, 정원문화 진흥, 관광 활성화 등 미래지향적 정책을 제도화하는 데 앞장섰다.

또한 126건의 간담회와 토론회, 90여 회의 현장활동을 통해 시민과 전문가, 관계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태화강국가정원과 삼산·여천매립장, 반구천의 암각화, 시립노인요양원 등 문화·복지·복지·보건 분야의 주요 시설과 사업 현장을 직접 찾아 운영 현황과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준비와 반구천의 암각화 보존·활용, 문화관광 기반 확충,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강화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주요 현안들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정책적 지원과 제도 개선에 힘썼다.

더 나아가, 울주군 송수관로 누수로 인한 단수 사태 복구 현장 확인, 집중호우에 대비한 태화강 방수문 점검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된 주요 현장과 생활밀착형 민원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며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과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 불편 해소에 기여하였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집행부에 대한 철저한 감증을 통해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 공공의료 서비스 향상, 복지 전달체계 개선, 환경오염 예방 및 생활환경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주문하였다. 단순한 지적에 그치지 않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건전한 시정 운영과 정책 개선을 유도하는 등 의회의 정책 의정 기능을 강화하였다.

지난 4년간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위원 모두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현장을 누비며 입법·감시·정책 제안이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노력하였다.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삼아 시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의 가치를 이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상임위원회별 성과에 대한 총평

》》 산업건설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전반기 위원장 문석주, 후반기 위원장 백현조)의 지난 4년은 산업수도 울산의 미래를 준비하는 동시에 시민 생활 속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을 누빈 시간이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급변하는 산업환경과 지역 사회의 변화 속에서 울산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는 울산의 미래 성장기반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였다.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과 기회발전특구 조성, 수소산업 육성, 분산에너지 활성화, 인공지능(AI) 산업 기반 구축 등 울산의 산업 대전환과 관련된 주요 정책과 사업을 점검하고 지원하며 미래산업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기반 조성에 노력하였다. 또한 산업단지 조성, 기업 투자유치,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을 보탰다.

둘째, 교통 인프라 확충과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에도 힘써왔다. 수소트램과 광역철도 구축, 울산역 복합환승 센터 조성, 북울산역 환승체계 개선, 주요 도로 개설 및 확장 사업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교통 현안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였다. 또한 교통체계 개선과 대중교통 이용환경 향상, 보행안전 확보 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에 노력하였다.

셋째, 도시 경쟁력 강화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에도 적극 나섰다. 도시재생사업과 주거환경 개선, 공동주택 및 기반시설 확충, 산업입지 조성 등 울산의 미래 발전을 위한 주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도시가스 공급 확대와 생활SOC 확충, 지역 균형발전 등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사업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였다.

무엇보다 산업건설위원회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자세로 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에 나섰다. 송전선로 이설, 통학로 개선, 침수예방 점검, 교통체계 개선 등 다양한 지역 현안을 직접 찾아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수많은 현장방문과 간담회, 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이 정책과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시민과 행정을 연결하는 소통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였다.

백현조 산업건설위원장은 “지난 4년은 울산의 미래 성장 동력을 준비하는 동시에 시민의 삶의 현장을 지켜온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밝히며, “산업과 도시, 교통과 생활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울산의 미래를 위해 고민하고 발로 뛰어온 경험과 성과는 앞으로도 울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상임위원회별 성과에 대한 총평

>>>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전반기 위원장 홍성우, 후반기 위원장 안대룡)는 지난 4년간 울산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과, 울산광역시교육청에 대한 감시·견제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민원 해결과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소통 창구로써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이 기간 동안 교육위원회는 101건의 조례를 심의하고, 159건의 간담회 및 토론회, 103건의 현장방문 등을 통해 교육현장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교육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의 입법활동을 통해 교육제도 개선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힘써왔다.

주요 사례로는 △학생의 통학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 문제와 지역·환경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안대룡 의원 대표발의), △교육 현장의 선제적 화재 대응체계와 실효성 있는 안전시설 기준 마련을 위한 「울산광역시교육청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권순용 의원 대표발의), △학생 및 교직원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급식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울산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김종섭 의원 대표발의), △학부모의 교육역량 강화 및 교육공동체로서의 참여 확대를 위한 「울산광역시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 조례안」(김수중 의원 대표발의), △학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체계적인 안전교육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울산광역시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문석주 의원 대표발의), △교육갈등관리 능력을 향상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한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 등이 있다.

이러한 조례안들은 교육환경 개선과 학생 안전 보장을 위한 실효성을 확보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의 학생 중심의 정책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또한, 교육위원회는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조정을 이어오며, 비효율적 교육사업을 바로잡고 합리적인 대안 마련에도 적극 노력했다. 울산광역시교육청의 학생 교육원 제주분원 설립 사업의 경우, 제주분원 사업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며, 설립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교육 재정의 합리적 집행을 도모하였다.

그리고 울산어린이독서체험관 설립의 경우, 예산 규모와 운영 효율성, 사업 타당성 등에 대한 우려로 공유재산 취득과 예산 편성 과정에서 여러 차례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며, 울산광역시교육청의 사업 계획 변경과 보완을 주문하여, 울산어린이독서체험관이 성공적으로 지역 아동들의 독서·문화 체험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남구지역의 제3특수공립학교 설립을 위하여 특수 교육 대상 학생들의 교육권과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상임위원회별 성과에 대한 총평

부지 선정과 조속한 설립이 가능하도록 교육청과 협력하여 추진하였으며, 북구지역에서는 학생·학부모들의 숙원 사업 이던 약수고등학교 설립을, 동구지역에서는 학생 체험 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울산창의누리관 조성을 교육청에 강력히 요청하고 이를 관철시킴으로써 균형 잡힌 울산교육 발전에도 힘을 보탰다.

이 밖에도 교육위원회는 초·중·고등학교 통학로 확보 및 상위학교 배정 문제 등 매년 반복되는 민원과 행정제도 개선을 위해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 구성원과 지속적으로 소통해왔다.

간담회와 현장활동을 통해 교육현장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실질적인 교육정책 마련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

했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안전한 근거리 통학과 입학 배정 개선을 위한 공청회와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여,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안대룡 교육위원장은 “민선 8기 교육위원회는 교육 현장과 소통을 더욱 확대하고, 학교·학부모·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학교가 단순한 교육 공간을 넘어 학생의 안전과 성장을 지원하는 공공적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주력했다”며, “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위원회는 울산교육 발전을 위해 울산광역시교육청 및 관계 기관과 치열하게 논의하고 협력하여 상당한 성과를 이뤄냈다고 자부하며, 이러한 성과들이 마중물이 되어 앞으로 울산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진 교육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의회운영위원회

제260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26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울산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다.

제261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사무처 소관 2026년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하였다.

제262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사무처 소관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였고, 울산광역시 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원안가결

하였고, 폐회중 울산광역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가결하였다.

제263회 임시회 폐회중 울산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 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의회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다.



위원장 공진혁



부위원장 권순용



위원 천미경



위원 손명희



위원 권태호



2026.01.16. 의회운영위원회 제261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



2026.04.10. 제26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회 개최

제261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울산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구성·운영(기능강화)에 관한 협약 보고의 건을 처리하였다.

제262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수시분(1차) 공유 재산 관리계획(안)을 예비심사하고 울산광역시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울산광역시 재난대응 군 장병 안전 지원 조례안 등을 원안가결하였다.

제263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울산광역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을 처리하였다.

현장활동

1월 6일부터 8일까지 정책현장활동으로 자치경찰 선진 사례와 지역특화자원 활용 산업화 사례를 비료시찰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를 방문하였다.

1월 28일 북구 매곡로 제철 전진기지와 제철 취락지역을 방문하여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안전사고와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2월 2일부터 120해울이콜센터를 방문하여 주요 업무 및 시설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4월 23일 학성새벽시장과 범서읍 사일마을을 방문해 전통 시장 및 산림인접마을에 설치된 비상소화장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봄철 화재 예방 및 초기 대응체계강화 방안을 살폈다.



위원장 이장길



부위원장 천미경



위원 김기환



위원 강대길



위원 공진혁



2026.01.07. 자치경찰 선전사례 및 지역자원 지역자원 활용 정책자료 수집활동



2026.01.28. 시민안전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2026.01.28. 대설 한파 대비 안전관리 현장점검



2026.02.02. 120 해운이플센터 연장 운영 격려 방문



2026.04.23. 비상소화장치 장비 작동 및 관리 상태 등 점검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위원회 개최

제261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울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복지보훈여성국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을 처리하였다.

제262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였고 울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출연금(변경) 의결의 건 등을 원안가결하였다.

제263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울산광역시

세계유산 반구천의 암각화 보존·관리 및 활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원안가결하였다.

현장활동

1월 30일 태화강국가정원 및 태화루 스카이워크를 방문하여 울산마차의 운영방식과 안전관리 체계 등의 보고를 받고 울산시립미술관을 찾아 울산시립미술관 소장품 기획 전시 현황을 확인하며 작품 및 전시 홍보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위원장 홍유준



부위원장 손명희



위원 안수일



위원 이영해



위원 김종훈



2026.01.27. 문화복지환경위원회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2026.01.30.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제261회 임시회 기간중
태화강국가정원 울산시립미술관 일원 현장방문



2026.01.30.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제261회 임시회 기간중
태화강국가정원 울산시립미술관 일원 현장방문



2026.01.30.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제261회 임시회 기간중
태화강국가정원 울산시립미술관 일원 현장방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회 개최

제261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울산광역시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처리하였다.

제262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였고 울산광역시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울산광역시 자동차전문정비 사업자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을 원안가결하였다.

제263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울산광역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신규펀드 조성을 위한 투자 조합 출자 동의안 등을 처리하였다.

현장활동

1월 16일 AI 관련 시설인 3D프린팅 벤처집적지식산업센터와 하이테크 타운을 방문했다. AI수도 전략에 따른 제조분야 AI전환 지원 기반 구축 현황에 대한 관계자 설명을 듣고 운영상 문제를 점검했다.



위원장 백현조



부위원장 권태호



위원 손근호



위원 홍성우



위원 방인섭



2026.01.27. 산업건설위원회 경제산업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2026.01.28. 산업건설위원회 AI 관련 시설 방문



2026.01.28. 산업건설위원회 AI 관련 시설 방문



2026.01.28. 산업건설위원회 AI 관련 시설 방문

교육위원회

제261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 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처리하였다.

제262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였고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 울산

광역시교육청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울산광역시 교육청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등을 처리하였다.

제263회 임시회 기간 중 202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2026년도 수시분(1차)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가결하였다.



위원장 안대룡



부위원장 권순용



위원 문석주



위원 김종섭



위원 김수종



2026.02.03. 교육위원회 직속기관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2026.02.04. 교육위원회 직속기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04.28. 202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제262회 임시회 기간 중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가결하고 202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과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가결하였다.

제263회 임시회 기간 중 202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과 202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가결하고 202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가결하였다.



위원장 방인섭



부위원장 홍성우



위원 권태호



위원 김종훈



위원 강대길



위원 이영혜



위원 손명희



위원 권순용



위원 문석주

윤리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상설화하였다.



2025.07.01. 제257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윤리특별위원회



2025.07.01. 제257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훈



부위원장 이영해



위원 김기환



위원 안수일



위원 김종섭



위원 손근호



위원 김수종



위원 권태호



위원 공진혁

울산광역시의회 꿈의도시 울산 청년과 함께 특별위원회

울산의 청년 유출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청년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결성하였으며, 활동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다.

제261회 임시회 기간 2026년도 울산광역시 청년정책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제261회 임시회 폐회중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였다.



2026.02.06. 제261회 임시회 꿈의도시 울산 청년과 함께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2026.02.20. 꿈의도시 울산 청년과 함께 특별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제3차 회의



2026.02.20. 꿈의도시 울산 청년과 함께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



위원장 권순용



부위원장 공진혁



위원 김종섭



위원 김종훈



위원 안대룡

울산광역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 원전산업을 울산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결성하였으며, 활동기간은 2023년 7월 13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이다.

제261회 임시회 기간 중 2026년도 울산광역시 원전안전

및 원전산업 육성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새울원자력 발전소 5·6호기 울산 유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제264회 임시회 기간 중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였다.



2026.02.03. 제261회 임시회 원전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



2026.02.23.울산광역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 제3차 정책자문위원회 회의



위원장 공진혁



부위원장 김종훈



위원 김기환



위원 안수일



위원 문석주



위원 김종섭



위원 김수중



위원 홍성우



위원 권순용

새울 원자력발전소 5·6호기 울산 유치 촉구 결의안



전 세계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에너지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거의 배출하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인 대용량 전력 공급이 가능한 원자력발전은 청정 에너지원으로 재평가받고 있으며, 미국·프랑스·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도 원전을 에너지 정책의 중요한 축으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안정적 전력 수급과 탄소중립이라는 두 가지 현실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대형원전 2기(이하 새울원전 5·6호기) 건설을 국가 에너지 정책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울산 울주군 서생면은 이미 새울 원전 1·2호기가 가동 중이며, 3·4호기가 건설 중으로 이 중 3호기는 2026년 8월에 상업운전이 예정되어 있는 검증된 원전 부지이다. 오랜 기간 원전과 함께 살아온 지역주민들의 수용성과 안전 관리 역량, 탄탄한 원전 산업 생태계는 신규 대형원전을 새울원전 5·6호기로 유치하는 최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새울원전 5·6호기가 울산 서생 부지에 건설될 경우 건설 기간 내에서만 수만 명의 고용 창출과 수조 원대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기대되며, 지역 원전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지방세수 확충으로 울산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그러나 부지 선정이 지연될 경우 국가 전력 수급 안정성에 차질이 생길 뿐 아니라, 지역 원전 산업 생태계의 공백과 숙련 인력의 이탈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이에 울산광역시의회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규 대형원전 2기를 울산 새울원전 5·6호기로 유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신규 대형원전 건설 부지를 울산 서생으로 신속히 확정하고, 차질 없이 착공하라.

하나. 정부는 방사선 위험 부담, 개발 제한, 사용후 핵연료 임시저장 등 수십 년간 감내해 온 원전 소재 지역 주민들의 희생에 상응하도록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라.

하나.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주)은 원전 소재로 인한 혜택이 울산 지역사회 전반에 균형 있게 환원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라.

2026년 3월 19일
울산광역시의회

5분 자유발언

제2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내신 5등급제 전환에 따른 학교 규모 격차와 학생 출발선 문제



안대룡 의원

남구3 삼호동, 무거동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이성룡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두겸 시장님과 천창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장 안대룡입니다.

저는 오늘, 울산의 학생들이 무엇을 잘못해서도 아니고, 무엇을 포기해서도
아닌데, 교육청의 결정 하나로 인생의 조건이 달라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건 성적의 문제, 태도의 문제, 노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행정의 문제입니다.

지금 울산의 학생들은 같은 제도 안에 있습니다.

같은 시험을 보고, 같은 교과과정을 따르고, 같은 기준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가르는 조건은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학교에 배정됐느냐에 따라 등급이 갈리는 방식도, 경쟁의
밀도도, 점수 분포도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차이를 만든 사람은 학생이 아니라, 교육청입니다.

내신 5등급제는 같은 등급 안에서의 상대적 위치가 훨씬 더 중요해지는
방식입니다. 이 구조 안에서 가장 크게 작용하는 요소가 바로 학교 규모,
즉 학급 수와 학생 수입니다.

울산에는 1학년 학급 수가 5~6학급인 학교가 있는 반면, 10학급 이상인
학교도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의 차이가 아닙니다.

평가 조건의 차이, 곧 기회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 구조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학생입니까? 학부모입니까? 학교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교육청입니다.

학급 수, 정원, 배정 권역, 학교 규모, 이 모든 것은 교육청의 권한이자 교육청이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결정 하나로 어떤 아이는 더 유리한 조건에서 시작하고, 어떤 아이는 더 불리한 조건에서 시작할 수 밖에 없습니다. 출발선부터 달라지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건, 이 상황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내신 5등급제 전환은 이미 2022년 개정 교육과정 단계에서 방향이 제시됐고, 교육부는 2023년에 공식 시행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즉, 교육청은 이 변화가 온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학생 수 감소, 학교별 정원 변화, 학급 수의 추이 이 모든 것은 데이터로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교육청은 배정 구조를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학교 규모 격차를 그대로 둔 채 제도만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지금 누가 감당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아이들입니다.

저는 이것을 ‘운영상의 문제’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이건 행정의 실패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법이 정한 책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교육기본법 제4조는 모든 국민은 차별 없이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 여건의 격차를 최소화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울산의 현실은 이 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어긋나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교육기본법이 말하는 기회균등입니까?

이것이 공교육이 지켜야 할 원칙입니까?

지금의 방식은, 특정 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아이들의 조건이 갈리는 방식입니다.

저는 이것을 사실상의 지역 기반 역차별이라고 봅니다.

이 상태를 그대로 두면 이 문제는 올해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년에도, 그다음 해에도, 같은 지역의 아이들이 같은 이유로 같은 불이익을 반복해서 겪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검토하자”거나 “논의하자”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당장 바뀌어야 합니다.

배정 방식은 바뀌어야 합니다. 권역 설정은 다시 설계되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규모가 다른 학교들을 한 권역에 묶는 방식은 불균형을 만들어냅니다. 생활권·통학권 단위로 권역을 세분화하고, 그 안에서 학교 간 학급 수를 맞춘 뒤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학교 규모 격차를 그대로 둔 채 제도만 바꾸는 방식은 지금 즉시 중단돼야 합니다.

이건 특혜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 조건의 문제입니다.

교육청이 해야 할 일은 관리하기 쉬운 방식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육위원장으로서 이 문제가 단순 검토로 끝나지 않도록 방향과 일정, 그리고 구체적인 조정안이 마련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출발선이 다른 경쟁, 이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아이들의 미래는 행정의 편의보다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울산, AI를 활용하는 도시를 넘어 AI의 기준을 세우는 도시로



백 현 조의원

북구3 강동동, 효문동,
양정동, 염포동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이성룡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두겸 시장님과 천창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동·효문·양정·염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산업건설위원장 백현조입니다. 오늘 저는 인공지능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울산이 AI 시대에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책임을 지는 도시가 될 것인지, 그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김두겸 시장께서는 신년 메시지와 여러 공식 발언을 통해 울산을 ‘AI 수도’로 도약시키겠다는 분명한 비전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에 발맞춰 올해 울산시는 AI를 개별 사업이 아닌 도시 전략으로 다루기 위해 전담 조직을 출범시키며 AI 정책을 본격적인 도시 의제로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점이 울산이 AI를 도입하는 도시에서 AI의 방향을 고민하는 도시로 나아가는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닙니다.

어떤 기준과 책임 아래 활용하느냐입니다.

울산은 AI를 잘 활용하는 도시를 넘어, AI의 판단 기준과 데이터 운영을 우리 도시의 현실과 가치에 맞게 주도하는 방향, 즉, 정책적으로 말하는 소버린 AI의 관점에서 전략을 설계해야 합니다.

이제 하나의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울산은 AI 도입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AI의 주도권을 스스로 쥐는 도시로 나아갈 것인가.

이 문제의식은 울산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정부 역시 AI를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데이터와 판단 기준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의 문제로 인식하며, AI를 국가 전략 산업이자 공공 인프라로 다루는 방향으로 정책과 법·제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전 세계적으로도 공통된 방향입니다.

글로벌 기업의 70% 이상이 AI를 실제 업무에 활용하고 있고, AI는 이미 경제와 행정, 산업 전반을 움직이는 기반 인프라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에서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은 “AI는 전기나 도로처럼 다뤄져야 할 기반 시설”이라고 말했습니다.

전기와 도로는 누군가 대신 판단해 주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도시가 관리하고,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지는 공공의 기반입니다. AI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은, 이 책임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입니다. 울산은 이 논의를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도시입니다. 조선·자동차·석유화학 산업 현장에서 AI가 생산성과 안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제 데이터로 그 효과가 검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울산시는 인공지능 수도를 목표로, 현재 약 7% 수준에 머물러 있는 지역 기업의 AI 기반 디지털 전환 비율을 2030년까지 40%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제 관건은 이 전환을 어떤 기준과 운영 원칙 아래 이끌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울산의 AI 정책이 다음 세 가지 원칙 위에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AI는 기술이 아니라 도시 문제 해결의 수단이어야 합니다. 교통 혼잡, 산업 안전, 환경, 행정 등 울산이 실제로 안고 있는 문제를 AI로 더 정확하고 신뢰 가능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둘째, AI는 특정 산업을 넘어 도시 전체를 잇는 전략이어야 합니다. 산업 현장에서 검증된 AI가 교통과 안전, 행정으로 확장될 때 AI는 비로소 도시 운영의 기준이 됩니다.

셋째, 울산은 AI의 선택과 판단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외부 기술을 활용하더라도 판단 기준과 데이터 운영 원칙은 울산의 현실과 가치에 맞게 결정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이것이 울산이 선택해야 할, 소버린 AI의 핵심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AI는 도시를 대신해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결정의 책임은 언제나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제 울산의 AI 정책은 기술이 아닌 기준을 중심으로 장기 도시 전략으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저 역시 의회에서 이 기준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제도와 예산, 운영 과정까지 함께 점검하며 끝까지 뒷받침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 공정한 역할 분담과 이익 배분이 필수입니다.



공진혁의원

울주1 온산읍, 온양읍,
청량읍, 서생면,
웅촌면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이성룡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두겸 시장님과 천창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수도 울산! 산업수도 울산!

온산국가산업단지와 새울본부를 지역구로 둔 공진혁 의원입니다.

오늘은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관련한 부울경 행정통합에 대한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울산은 과거 경상남도 소속 시절 지역에서 발생한 세수로 경남을 넘어 대한민국 발전에 크게 기여했음에도 자체 예산 편성이나 지역 개발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공업·공해 도시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떠안았습니다.

1997년 울산광역시로 승격하기 까지 울산시민이 중심이 되어 각고의 사회적 노력과 기나긴 줄다리기를 끝에 이루어낸 것으로 울산광역시 승격이후 산업 경쟁력을 축적해 왔으며, 이러한 역사적 경험과 울산시민의 염원을 되새기며, 현재 행정통합 논의를 접근해야 합니다.

통합 과정에서 울산의 실질적 이익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과거와 유사한 불균형 구조가 재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울산은 현재 국내 주요 제조·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서 막대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통합과 관련해서 우리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울산에 실질적으로 돌아오는 혜택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울산시민을 대표하는 울산시의회의 기능 또한 위축되고 생산 기반만 활용당하고 지역 내 재투자가 제한될 우려 또한 높습니다.

따라서 통합을 논한다면 울산의 지역에 대한 조세권과 재정 자율성을 명확히 보장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현행 예산 규모를 최소한 유지하거나, 울산에서 창출된 세수의 상당 부분을 지역에서 우선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 되어야 합니다.

특히 통합 이후 울산의 행정·재정적 선택권 축소를 우려 해야 합니다. 현재 광역시로서 울산은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독립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특별시 체제에서는 ‘울산은 경제적으로 여유 롭다’는 명목으로 자체 자원 해결을 압박받고, 예산은 낙후 지역으로 집중 배분되어 울산은 개발과 인프라 확충에서 소외될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온산 국가산업단지입니다. 국가 경제에

막대한 기여를 하면서도 주변 인프라와 생활 환경 개선은 매우 부족합니다. 이러한 현실이 부울경 행정통합으로 더욱 심화될 수 있으며, 이는 울산 시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 입니다.

부울경 행정통합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도권 집중에 맞서는 동남권 클러스터로서의 전략적 가치는 충분히 인정합니다. 다만 울산의 경제적 기여에 상응하는 실질적 보상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부울경 행정통합 협약서에 울산의 조세권 보장, 예산 배분 비율, 의사결정 참여권 등을 명문화하고, 시의회와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공론화를 통해 사전에 합리적 합의점을 도출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부울경 행정통합은 울산의 실리와 균형을 최우선으로 설계해야 추진 가능합니다. 과거의 아픈 교훈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철저한 조건 검토와 명확한 보장 장치 마련이 시급합니다.

울산 시민의 미래를 위해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제2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울산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언



이 영 해의원

남구6 대현동, 선암동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성룡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두겸 시장님과 천창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이영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해 12월 제가 주관했던 ‘울산 야간관광 활성화 토론회’에서 제기된 논의들을 바탕으로 울산지역 야간관광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토론회는 울산의 야간관광을 단순한 이벤트가 아닌, 도시 경쟁력과 지역 경제를 좌우하는 중요한 정책 과제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토론회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된 문제는, 울산의 경우, 관광자원은 매우 풍부하지만 야간 시간대에 이를 즐길 수 있는 기반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태화강 국가정원, 장생포 고래문화특구, 대왕암공원, 간절곶 등은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관광자원입니다. 그러나 이 공간들이 해가 진 이후에는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콘텐츠의 부재라기보다, 야간에 맞는 기획과 연출이 부족한 구조적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저는 세가지로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울산형 대표 야간관광 콘텐츠’를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토론회에서도 강조되었듯이, 모든 지역을 동일한 방식으로 밝히는 야간경관 사업은 한계가 있습니다.

태화강은 생태와 빛이 어우러진 힐링형 야간관광으로, 장생포는 고래와 산업유산을 결합한 스토리형 야간 콘텐츠로, 간절곶은 일출뿐 아니라 밤과 새벽을 연결하는 체류형 관광으로 특화해야 합니다.

즉, 장소별 정체성을 살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야간관광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야간관광은 단순히 볼거리를 제공하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관광객이 머물고, 먹고, 소비하고, 다시 찾도록 만드는 구조가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야간 개장 상점과 음식점에 대한 행정적 지원, 지역 예술인·청년 상인이 참여하는 야간 프리마켓과 문화공연, 전통시장과 연계한 야간관광 동선 구축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민간이 주도하고 행정이 뒷받침하는 상생형 야간관광 모델을 구축해야 할 시점입니다.

세 번째, 안전과 접근성이 확보된 야간관광 인프라 조성입니다.

토론회 참석자들 역시 야간관광의 가장 기본 조건으로 안전한 보행환경, 편리한 교통, 명확한 안내 시스템을 꼽았습니다. 야간 대중교통 연장, 관광지 순환 셔틀버스 도입, 범죄 예방 시설 확충 등은 콘텐츠 이전에 반드시 갖춰야 할 기본 인프라라고 할 것입니다.

특히 여성과 가족 단위 관광객, 고령자도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안전한 야간관광 도시 울산’이라는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제 이러한 논의가 토론에 그치지 않고, 정책으로 구체화하고 실행으로 옮기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야간관광은 단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보다, 도시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지역경제를 살리고, 울산의 도시 이미지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장기 전략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어제, 울산고 상부에 전국 최초의 교량 위 미식 공간인 ‘울산 세계음식문화관’이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낮에는 탁 트인 강변 전망을, 밤에는 화려한 도심 야경을 감상하며 세계 각국의 정통 요리를 즐길 수 있어, 지역관광은 물론 야간관광 활성화 측면에서 벌써부터 기대하는 바가 매우 큼니다. 태화강의 수려한 경관과 노을을 조망할 수 있고, 다리 위 이색 공간이라는 점은 전국적인 이목을 끌기에도 충분한 관광 아이টে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 울산의 야간관광 성공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와 행정이 함께 지혜를 모은다면, 울산이 ‘노잼도시’라는 오명을 벗고 낮과 밤이 모두 즐겁고 매력적인 ‘꿀잼도시 울산’으로 충분히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특히 2028년 울산국제정원박람회를 앞둔 바로 지금이, 변화의 적기입니다.

앞으로 문화·경제·안전이 통합된 전략적 야간관광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울산시는 물론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제2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새울원자력발전소 5·6호기, 반드시 울산 서생에 건설되어야 합니다



공진혁의원

울주1 온산읍, 온양읍,
청량읍, 서생면,
웅촌면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이성룡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두겸 시장님과 천창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울원자력본부와 온산국가산업단지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공진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울산의 에너지 주도권과 지역경제의 미래를 걸고, 정부에 새울 원자력발전소 5·6호기의 울산 서생 부지 유치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월 26일, 정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1.4GW급 대형 원전 2기를 2037년과 2038년에 준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1월 30일 전국을 대상으로 원전 후보 부지 유치공모를 공식 착수했으며, 각 기초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 동의서를 포함한 유치신청서를 오는 3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울산에게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천재일우의 기회입니다.

울주군 서생면은 이미 우리나라에서 가장 검증된 원전 부지입니다. 새울 1·2호기가 현재 가동 중이며, 3호기는 지난해 말 운영허가를 취득했고 4호기도 건설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기존 송전망과 기반 인프라가 완비되어 있고, 수십 년간 원전과 함께 살아온

주민들의 성숙한 이해와 수용성도 갖추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2023년 10월, 서생면 유권자 7,600여 명의 과반수인 4,042명이 직접 서명하여 정부에 새울 5·6호기 자율 유치 희망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유치 의사 표명이 아니라, 지역 주민 스스로가 원전과 공존하며 울산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경제적 효과도 명확합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추산에 따르면, 원전 1기 운영 기간 60년 동안 법정 지원금과 지방세 등으로만 약 2조 원 이상이 지역에 투입됩니다.

신규 원전 2기가 서생에 유치된다면 그 규모는 두 배로 늘어납니다. 수십 년에 걸쳐 지역 고용과 세수 확보, 주민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어지는 것, 이것이 울주군이 앞으로 수십 년을 지속 가능하게 발전해 나갈 토대입니다.

또한 AI 데이터센터, 반도체 클러스터 등 급증하는 전력 수요 시대에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청정 전력 공급원으로서 원전의 가치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울산은 이미 산업수도로서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는 도시입니다. 새울 5·6호기는 울산의 산업경쟁력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탄소중립 목표에도 기여하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제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최적의 부지를 선정해야 합니다. 서생 부지는 이미 확보되어 있고, 기존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어 공사비 절감과 신속한 공기 단축이 가능합니다. 2037년, 2038년 준공이라는 정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서생 부지가 압도적으로 유리한 선택지임은 자명합니다. 전국에서 이만한 조건을 갖춘 부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울산시의회가 한목소리로 새울 5·6호기의 서생 부지 유치를 지지하고, 울주군의 유치신청을 적극 뒷받침하며,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에 울산 유치 결정을 공식 촉구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울산이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의 중심축으로서 그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가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제2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변화한 이용 현실에 맞는 ‘울산-언양 고속도로’ 통행료 정책이 필요합니다



안대룡 의원

남구3 삼호동, 무거동

존경하는 울산 시민 여러분!
이성룡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두겸 시장님과 천창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거·삼호 지역구를 둔 교육위원장 안대룡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반세기 넘게 시민의 지갑을 옥죄고 있는 ‘울산-언양 고속도로 통행료’의 불합리함을 지적하고, 현실적인 정책 변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울산과 언양을 잇는 이 도로는 서류상 여전히 고속도로입니다.

하지만 실제 이용 현실은 어떻습니까?

출퇴근 등 일상적인 이동 비중이 높은 생활도로로 변화하였습니다.

불과 14km 남짓한 구간을 이동하면서 매일 통행료를 부담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에게는 끝없는 생활비 부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공정한 대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현행 「유료도로법」 제16조제4항은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행료 총액은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즉, 유료도로는 비용 회수를 기본으로 하는 제도이며, 그 취지에 맞는 운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현실은 어떻습니까?

울산-언양 고속도로는 이미 건설비를 초과 회수한 대표적인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째 징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의 취지는 사라지고, 관행적인 징수만 남았습니다.

그 중심에는 ‘통합채산제’라는 거대한 벽이 있습니다.

둘 이상의 유료도로 손익을 하나로 묶어 계산하다 보니, 특정 구간의 현실과 시민들의 눈물 어린 호소는 철저히 무시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울산만의 외침이 아닙니다. 인천을 비롯한 전국 여러 지자체에서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울산시 역시 수차례 개선을 요구했지만, 한국도로공사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이제는 ‘무료화’를 넘어 ‘고속도로 노선 지정 해제’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미 선례도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양평동~신월IC 구간처럼 도시화로 고속도로 기능이 약화되면서 노선이 해제되고 일반도로로 전환되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도시화에 따라 노선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울산은 50년 넘게 건설비를 회수하고도 왜 여전히 이 낡은 족쇄를 채워두는 것입니까?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현실적인 방안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도심 간선도로 역할을 수행하는 울산-언양 구간에 대해 고속도로 노선 지정을 해제하고 일반도로로 전환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둘째, ‘통합채산제’의 불합리함을 타파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셋째, 전면 무료화가 당장 어렵다면, 통행료 감액이나 출퇴근 시간대 요금 차등 적용 등 단계적인 부담 완화 조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넷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시 차원에서라도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 지원과 같은 보완 대책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 문제는 단순한 ‘요금 몇 푼’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익이 끝난 도로에서 통행료를 계속 징수하는 정책적 불일치를 바로잡는 일입니다.

시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결단입니다!

과거에 낡은 기준이 아니라, 현재의 이용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본 의원 역시 김두겸 시장님과 국회의원, 동료의원들과 힘을 합쳐 시민들의 통행료 부담이 완전히 해소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목소리를 높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제2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의 성공 조건은 접근성과 운영입니다



김 종 훈 의원

울주3 범서읍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성룡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두겸 시장님과 천창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환경위원회 김종훈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울산의 숙원사업이자 영남권 산재 거점 병원이 될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의 성공적인 개원을 앞두고, 철저한 운영 준비와 함께 현재 시민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주차 공간 부족 문제에 대한 선제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울산은 대한민국 산업의 메카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국립 공공병원 하나 없는 의료 오지라는 오명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제 오는 하반기 개원할 산재전문 공공병원은 단순한 산재 환자 치료를 넘어, 3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서 울산의 열악한 공공의료 인프라를 지탱할 핵심이 될 것입니다.

시민들은 이제 멀리 타 도시로 원정 진료를 떠나지 않아도 된다는 희망에 부풀어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 문을 열기도 전에 시민들의 기대감을 꺾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바로 ‘주차장 부족’입니다. 병원의 특성상 거동이 불편한 환자와 보호자의 자차 이용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계획된 주차 면수는 400면으로 대형

종합병원의 유동 인구와 상주 인력 약 700명을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큼니다.

주차 공간이 부족하면 병원 주변 도로는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게 될 것이며, 이는 응급차량의 진입을 방해하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병원을 찾는 환자가 주차장을 찾아 해마다 치료 골든 타임을 놓치거나, 진료 전부터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현재 병원 예정지인 범서읍 굴화리 일원은 이미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어 상시 교통량이 매우 많은 지역입니다.

여기에 대형 병원이 가동되면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 그리고 관련 종사자들로 인한 교통 유입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병원 주변 도로가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질되면 주민들의 보행 안전은 위협받고, 긴급 상황 시 소방차나 구급차의 진입이 불가능해지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이 ‘시민에게 사랑받는 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울산시에 다음과 같은 대책 마련을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인근 유희 부지를 활용한 임시 주차장 조성이나 주차타워 건립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차 면수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둘째, 자차 이용을 줄일 수 있도록 병원 경유 버스 노선을 증설하고, 주요 거점과 병원을 잇는 셔틀버스 운행 등 대중교통 체계를 전면 재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드웨어만큼 중요한 것이 소프트웨어입니다. 우수한 의료 인력이 울산에 정착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을 마련하고 최첨단 스마트 진료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은 시민의 혈세와 간절함이 모여 만들어진 소중한 자산입니다. 개원 초기부터 주차난으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병원 이용을 기피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울산시의 적극 행정을 요청드립니다.

우리 시민들이 “울산에도 정말 제대로 된 병원이 생겼다”고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한 개원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거듭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제2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알고도 막지 못한 비극, 다섯 명의 죽음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공진혁의원

울주1 온산읍, 온양읍,
청량읍, 서생면,
웅촌면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이성룡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두겸 시장님과 천창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진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3월 18일 울주군 온산읍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33살의 아버지, 그리고 일곱 살 첫째부터 생후 5개월 막내까지 네 명의 어린 자녀! 이 다섯 명의 가족이 싸늘하게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장에는 유서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홀로 키우기 힘들다. 미안하다.” 이 짧은 문장 앞에서 저는 의원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어른으로서 우리가 이미 관리 대상으로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막지 못한데 대하여 깊은 자책을 느꼈습니다.

이 가정은 지난해부터 복지 사각지대 발굴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2월에는 기초생활수급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담임교사는 결석이 계속되자 가정도 찾았고, 방임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함께 현장을 확인했지만, 학대 정황이 없다는 판단 아래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이후 담임교사가 사흘째 결석을 확인하고 집을 찾았을 땐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교육청, 경찰, 지자체. 세 기관이 모두 움직였으나 아무도 막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는 부서와의 다자녀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속적으로 협의 하였고 그 결실로 올해부터 다섯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아이돌봄 지원 사업이 시범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향후 지원대상을 네 자녀, 세 자녀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울산시와 함께 강구하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 더욱 당황스럽고 안타까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여러분!

왜 이런 비극적인 일이 반복되는 것일까요?

고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아동보호 매뉴얼이 학대와 방임의 직접적 징후를 확인하는 데 집중되어 있어, 경제적 위기나 양육 한계와 같은 복합적 위험 신호를 포착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을 홀로 키우기 너무 힘들다”는 절박한 호소는, 매뉴얼 어디에도 즉각적인 개입 사유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둘째,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할 수 없는 구조가 이 가정을 끝내 붙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초생활수급 요건을 갖추고 있었지만, 당사자가 서류를 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건강이 악화되고 정신적으로 한계에 몰린 아버지에게 서류 작성은 넘을 수 없는 벽이었을 것입니다.

공무원이 징후를 포착하고도 당사자 동의 없이는 금융정보 조회, 직권신청도 할 수 없는 구조. 이것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복지 제도의 현실입니다.

이에 저는 울산시에 두 가지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첫째, 아동보호 대응 지침을 재검토해 주십시오.

결석이력, 건강보험체납, 복지신청거부, 주 양육자의 건강 악화 등 이러한 신호들이 겹쳤을 때 교육청·경찰·복지관·보건소가 정보를 공유하고 통합 대응이 자동으로 가동되는 체계를 만들어 주십시오.

둘째,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주십시오.

제가 만난 다섯 자녀 가정은 집은 전쟁터라고 합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울산’이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다자녀 가정에 대한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고 위기를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갖춰 주십시오.

생후 5개월짜리 아이가 집 밖으로 나와 보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금 당장 책임있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더 간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제2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업수도 울산,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



백 현 조 의원

북구3 강동동, 효문동,
양정동, 염포동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이성룡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두겸 시장님과 천창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동·효문·양정·염포를 지역구로 두고있는 산업건설위원장 백현조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제8대 의회의 의정활동을 겸허히 돌아보고, 우리 울산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지속 가능한 미래 방향에 대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우리 울산은 대한민국 ‘산업 수도’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함과 동시에,
도시 전반의 체질 개선을 위해 쉼 없이 노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먼저 경제 현장에는 활력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S-OIL의 사힌 프로젝트와 현대자동차 전기차 전용 공장 신설은 물론 AI
데이터센터 등 35조원이 넘는 대규모의 투자를 유치하였습니다.

또한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과 기회발전특구 확대를 통해, 울산은 이제
전통 제조업을 넘어 AI와 미래차 중심의 첨단 산업 도시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둘째, 시민의 발은 더욱 넓어졌고, 또한 빨라지고 있습니다.

울산 도시철도 트램 1호선의 본격 추진과 2호선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선정, 그리고 부산·양산을 잇는 광역철도망 구축은 울산의 교통망을 혁신적으로 재편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셋째, 도시의 품격과 시민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고 있습니다.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유치와 태화강 국가정원의 활성화, 그리고 반구천 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는 우리 울산의 자부심을 높이고 ‘다시 찾고 싶은 도시’로 변모시키는 귀중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입니다.

넷째, 청년과 시민이 머무르고 싶은 정주 여건 조성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희망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여 젊은 세대가 울산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으며, 아울러 시민야구단 창단과 같은 생활·문화 기반 확충을 통해,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며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현장 중심의 노력과 책임 있는 행정 속에서, 우리 의회의 제도적 뒷받침이 더해져 이루어진 공동의 결실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산업건설위원회는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시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10년, 아니 30년 뒤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신발 끈을 다시 매어야 합니다.

앞으로 울산은 ‘AI 기반의 산업수도’이자 ‘초광역 중심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제는 단순히 공장이 돌아가는 도시를 넘어, 인공지능과 에너지가 결합한 신산업이 시민의 일상과 조화를 이루는 스마트 도시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거대한 변화는 행정의 힘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공감과 참여, 그리고 지역 산업계의 적극적인 협력이 함께할 때 비로소 울산의 미래는 우리 모두가 소원했던 모습으로 변모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울산광역시의회 역시 시민의 대변자로서, 울산의 미래 전략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입법 지원과 울산 미래 발전을 위한 정책 대안 제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제2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민과 함께 걸어온 길, 그리고 새로운 시작



손 명 희의원

비례 더불어민주당

존경하는 이성룡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두겸시장님과 천창수교육감님을 비롯한 울산 시민 여러분.
손명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제8대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으로서 마지막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서니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시민 여러분의 선택으로 시의회에 들어와 첫 등원을 하던 날의 설렘과 무거운 책임감, 그리고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는 다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는 30년간 의료현장에서 간호사로 일하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왔습니다. 응급실에서, 병실에서, 수술실에서 만난 시민들의 삶은 저에게 한 가지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정치는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행정은 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품고 의정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저는 시민의 건강권과 안전, 공공의료 강화, 돌봄 사각지대 해소, 재난 대응 체계 구축, 그리고 사회적 약자의 삶을 지키기 위한 정책 마련에 힘써 왔습니다.

현장을 찾아 시민의 목소리를 들었고, 정책이 필요한 곳에는 대안을 제시 했으며, 행정이 놓치고 있는 부분은 끊임없이 점검하고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했고, 공공의료 강화와 건강권 보장을 위해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또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과 장애인, 취약계층의 삶을 살피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에도 힘을 보탰습니다.

그 과정이 늘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부족함도 있었고, 아쉬움도 남습니다.

하지만 단 한 순간도 시민을 위한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무엇보다 의정활동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은 울산 시민의 힘이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돕고, 지역을 지키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려는 시민들의 모습은 저에게 큰 용기와 희망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함께 토론하고 고민하며 울산의 발전을 위해 노력했던 시간은 저에게 큰 배움이었습니다.

정당과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시민을 위하는 마음만큼은 같았다고 믿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민의 삶을 위해 애써주신 여러분의 노력 덕분에 의회와 행정이 함께 울산의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최근 또 한 번 시민의 선택 앞에 섰었습니다.

결과는 1.4%, 266표 차이로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결코 크지 않은 차이였지만, 그 결과 또한 시민의 뜻이기에

저는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결과보다 더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 만났던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과 응원, “수고했다”, “고맙다”, “다시 힘내라”는 격려의 말씀, 그리고 더 나은 지역을 함께 만들어 가고자 했던 마음들입니다.

그 마음들은 저에게 큰 위로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의정활동은 오늘로 한 장을 마무리하지만, 시민을 향한 저의 책임과 사랑은 끝나지 않습니다.

직함은 내려놓을 수 있어도 시민을 향한 마음까지 내려놓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시민 곁에 있겠습니다.

더 낮은 곳에서, 더 가까운 곳에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30년 의료현장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왔던 사람으로서, 그리고 시민의 선택을 받아 의정활동을 했던 사람으로서, 어떤 자리에서든 시민을 위한 역할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지난 시간 보내주신 믿음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걸어온 모든 순간이 저에게는 큰 영광이었습니다.

제8대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손명희로 살아온 시간은 제 인생의 자랑스러운 시간입니다.

그 자랑스러운 이름을 가슴에 품고, 이제 저는 다시 시민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걸어온 길, 그리고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갈 새로운 시작을 위해, 늘 그랬듯 시민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제2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현장에서 들은 울산, 책임감으로 실천한 4년



문 석 주 의원

북구2 농소2동, 농소3동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성룡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두겸 시장님과 천창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석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제8대 울산광역시의회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울산 시민 여러분과 북구 주민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선택을 받고 이 본회의장에 들어섰던 날을 기억합니다.

주민 여러분께서 제게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은 분명했습니다.

“길 좀 이어 달라.”

“아이들이 가까운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해 달라.”

“우리 동네도 울산 발전에서 소외되지 않게 해 달라.”

저는 다짐했습니다.

“현장에서 듣고, 결과로 보답하자.”

지난 4년 동안 저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뛰었습니다.

시민의 불편은 그냥 지나치지 않고, 주민의 목소리는 정책으로, 정책을 예산으로 연결하고, 예산을 시민의 삶을 변화로 돌려드리고자 했습니다.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으로 가장 중요하게 붙잡았던 과제는 울산의 길을 잇고, 북구의 생활지도를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농소~옥동 간 도로, 이예로 전 구간 개통은 북구 주민들의 이동 시간을 줄이고, 울산의 남북축을 잇는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달천아이파크1차 후문에서 천곡천을 잇는 도로도 준공되었고, 농소~

외동 간 도로, 농소~강동 간 도로, 울산시 외곽순환도로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로 하나가 놓이면 단순히 차량이 오가는 길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출근길이 짧아지고, 통학길이 가까워지며, 응급차와 소방차가 더 빨리 도착할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열립니다.

그 길은 시민의 생활을 바꾸는 길이고, 지역의 미래를 넓히는 길입니다. 울산 산업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산업, 이차전지산업, 지역건설산업, 방폭 안전관리 등 울산의 산업 기반과 민생경제를 뒷받침하는 조례와 정책에도 힘을 보탰습니다.

후반기 교육 위원으로서는 무엇보다 아이들의 학교와 통학 길을 가장 먼저 생각했습니다.

북구 농소지역은 인구는 꾸준히 늘었지만, 교육 인프라는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농소2동에는 고등학교가 없어 많은 학생들이 먼 거리 통학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민과 학부모의 목소리를 듣고, 교육청과 수차례 논의 하며, 약수고등학교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약수고는 202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학교 문제는 단순한 시설 문제가 아닙니다. 아침마다 먼 길을 나서는 학생의 피로이고, 매일 통학 안전을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이며, 교육환경 개선은 곧 지역의 미래를 지키는 일입니다.

약수초와 효문초 이전 개교, 농소중학교 그린스마트학교, 이화중학교 안전 통학로, 학교 주변 안전시설, 학교폭력 예방 등 학생의 안전, 학부모의 신뢰를 지키는 교육정책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지난 의정활동을 돌아보면 대표발의 18건, 공동발의 232건이라는 숫자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숫자 하나하나에는 주민의 불편, 학생의 통학길, 기업의 애로, 어르신들의 발걸음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저는 지난 시간 많은 상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게 가장 큰 상은 상패가 아니었습니다.

“길이 편해졌다.”

“우리 아이 학교 걱정을 덜었다.”

“동네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주민 여러분의 그 한마디가 제게는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물론 아쉬움도 있습니다. 더 빨리 해결하지 못한 일도 있고, 더 충분히 챙기지 못한 현장도 있습니다.

그 부족함까지 시민 여러분께서 제게 남겨주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또 다른 길 위에서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그 길이 어떤 자리이든, 어떤 역할이든, 저의 출발점은 언제나 울산시민 여러분과 북구 주민분들입니다.

지난 시간 현장에서 들었던 목소리,

함께 손잡고 걸었던 길,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고민했던 순간들을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울산의 길을 잇고, 북구의 내일을 준비하며, 시민의 삶을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만드는 일에 앞으로도 변함없이 함께 하겠습니다.

시민 곁에서 시작한 마음, 북구 주민과 함께한 약속, 그 책임을 새로운 길에서도 이어가겠습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믿음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낮은 자세로 듣고, 깊이 고민하고, 끝까지 책임 있게 실천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제2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위대한 울산을 새롭게 만들어온 지난 4년! 울산의 변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천 미 경의원

비례 국민의힘

존경하는 이성룡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두겸 시장님과 천창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울산 시민 여러분!
천미경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제8대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으로서 이 자리에서 마지막 5분 자유
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4년을 돌아보면, 저에게 의정활동은 직책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책임
지는 무거운 약속이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의 목소리는 저를 움직
이는 힘이었고, 그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달려왔습니다.

울산경제의 뿌리와 같은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찾아가는 정책지원
서비스’ 제안을 시작으로, 교육의 이념 및 환경의 개선과 도시안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고민했습니다.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 ‘울산지역경제연구회’를 구성해 동료
의원들과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도 하였고, 수 차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현장 확인과 의견청취 간담회를 진행하고, 이어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개정 발의하였습니다.

특히, 울산의 미래성장과 선도적 기술 확보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 빅데이터 활용,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등

총 31건의 조례를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이 모든 시간은 시민 여러분의 신뢰와 응원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때로는 따뜻한 질책이 더 나은 정책을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울산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임기를 마치면서, 여러분들과 울산의 발전이라는 목표 앞에서 언제나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치열하게 토론하고 협력해온점, 지난 4년을 마음에 담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4년 동안 울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막중한 책임을 다해 밤잠을 설치며 위대한 울산을 끊임없이 만들어 오신 김두겸 시장님께도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으로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시민을 위해 일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래! 역시! 울산’의 슬로건 아래, 김두겸 시장님은, 시 재정을 위해 채무를 2,500억 원을 갚아냈고, 1조 원대의 교부세를 확보했으며 트램1호선을 착공시켰고, 7조원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유치 등의 미래 산업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36조원이라는 방대한 투자유치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러한 “불도저 같은 추진력”에 감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울산의 미래를 위해 견고히 쌓아온 이 기반은 울산 시민 모두의 자산이며, 울산의 미래 100년을 만드는 디딤돌을 마련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정치는 시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일이며, 울산을 발전시키는 일입니다. 시장이 바뀌고 시의원이 바뀌더라도 울산의 밝은 미래라는 목표만큼은 결코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시장의 개인 공약으로 인해 진행 중인 사업들이 중단되어서도 안됩니다. 울산시와 시민의 대표인 울산시의회가 함께 쌓아온 정책들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우리가 함께 심은 변화의 뿌리는 이제 더 큰 숲으로 자라야 합니다. 그 길에는 정파도, 개인의 이해도 앞설 수 없습니다. 오직 시민들만 바라보고 울산의 미래만이 기준이 되어야 하고, 위대한 울산의 변혁은 계속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지난 4년 동안 보내주신 신뢰와 성원에 가슴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년 상반기



울산광역시의회 서면질문 목록



2026. 1. 1. ~ 6. 30.

연번	제출의원	소속상임위원회	질 문 내 용	접 수 일 시
1	홍유준	문화복지환경	제2염포산터널 등 도로망 확충 사업의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1.13.
2	천미경	행정자치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 연장에 관한 질의	1.14.
3	손근호	산업건설	송정지구 시내버스 노선 관련	1.15.
4	김동철	교육	남구 달동 먹자골목 불법 증개축 합리적 해결 방안 마련에 관한 질의	1.19.
5	안수일	문화복지환경	남산 산책로 훼손! 공원일몰제 해제 사유지 관리 대책 필요	1.20.
6	백현조	산업건설	청정수소 인증 운영 핵심 기능의 수도권 운영 실태에 관래	1.21.
7	김종섭	교육	장학관·교육연구관 승진 인사 관련	1.22.
8	안대룡	교육	내신 5등급제 운영에 따른 학교 규모 격차 및 학생 피해 발생 관련	1.27.
9	김종섭	교육	중학교 배정방식 개선 및 원거리 통학 문제에 대한 질의	1.29.
10	안대룡	교육	내신 5등급제 운영에 따른 학교 규모별 형평성 재질의	2.4.
11	강대길	행정자치	외국인·다문화 가구의 지역주민 간 생활문화 화합 추진 현황에 대하여	2.6.
12	김종섭	교육	장학관·교육연구관 승진 인사 관련 재질의	2.10.
13	권순용	교육	학교 양치 환경 조성과 예방 중심 정책으로 학생 구강건강 관리 체계를 전환할 계획 여부 관련	2.12.

연번	제출의원	소속상임위원회	질 문 내 용	접 수 일 시
14	방인섭	산업건설	여천매립장 파크골프장 관련 질의	2.12.
15	안대룡	교육	고등학교 학급편성 및 정원 배정 구조의 균형 관리에 관한 질의	2.12.
16	권태호	산업건설	시민체감형 SI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울산시의 계획과 전략에 대하여	2.23.
17	방인섭	산업건설	공동주택 지하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지원사업 관련	2.24.
18	천미경	행정자치	울산 응급 및 의료시스템 강화에 관한 질의	3.4.
19	안대룡	교육	엄흥도 관련 역사자산 관광 활용 및 홍보 대응 방안	3.9.
20	안대룡	교육	무상교육비 지원 산정 기준과 예산 절차의 적정성에 대한 질의	3.20.
21	김종훈	문화복지환경	울주 일가족 사망 사건 관련, 위기가정 대응체계 점검 촉구	3.20.
22	안대룡	교육	시민야구단 활성화를 위한 문수야구장 관람환경 개선에 관한 서면질문	3.31.
23	권태호	산업건설	울산형 제조 소버린 SI 전략과 실행계획에 대하여	3.31.
24	천미경	행정자치	울산 내 종량제 쓰레기봉투 품귀현상에 관한 질의	3.31.
25	천미경	행정자치	울산 시내 도로망 체계 개선(이면도로 일방통행 불편 개선) 방안에 관한 질의	3.31.
26	안대룡	교육	무상교육비 산정 방식 및 표준유아교육비 해석 관련 재질의	4.1.
27	강대길	행정자치	울산광역시 고층 건축물 등 화재 대응 시도입 방안	4.3.
28	방인섭	산업건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관련	4.7.
29	방인섭	산업건설	평창현대 앞 공영주차장 관련	4.16.
30	손명희	문화복지환경	울산시설공단 고용형태별 복무기준 차이와 개선 방향	4.22.
31	김종훈	문화복지환경	선바위공공주택지구 보상 지연 관련 적극적인 행정 대응	4.22.
32	안대룡	교육	울산웨일즈 관람문화 활성화 및 문수야구장 환경개선 관련	5.20.

눈에 띄는 조례



제261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 울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방인섭 의원(대표발의)

사업시행구역 면적기준 확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면적기준에 관한 규정 부재로 행정의 통일성과 집행 과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함

■ 울산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김기환 의원(대표발의)

중대재해 예방 정책 추진 근거 마련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계획 수립을 규정하여 실태조사, 시민 생활과 밀접한 공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수단을 중심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

■ 울산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홍성우 의원(대표발의)

농업기계 임대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

고령·영세 농가를 위한 농기계 운송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임대기간의 예외적 연장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농업인의 복지 증진과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손근호 의원(대표발의)

창업기업 지원 7년으로 확대

울산의 5년 이내 창업기업 생존율이 31.2%로 기존 3년 이내 기업으로 한정되어 있던 창업기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창업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교육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권순용 의원(대표발의)

학생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청소년 또는 사회초년생 시기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를 위하여 피해예방 교육과 보호 조치의 강화를 위하여 학생 보호 및 대응 방안을 규정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금융생활을 도모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 권순용 의원(대표발의)

학교시설 개방 지원 규정

학교시설 개방에 필요한 비용 지원 및 우대 혜택과 안정적인 개방을 위한 지자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의 사항을 신설하여 적극적인 학교시설 개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권순용 의원(대표발의)

청년층 능력개발 비용 지원 등 규정

청년의 능력개발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문화 예술 및 스포츠 시설 이용료 이용권 지급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와 문화·체육 향유 기회 확대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 문석주 의원(대표발의)

교육청의 산업재해 예방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증진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해 선제적 예방의 제도적 근거 마련으로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안전·보건사업의 안정적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영해 의원(대표발의)

전기마차 도입으로 관광산업 증진

주요 관광지에 전기마차를 도입하고 이용료 및 감면대상을 규정하여 울산의 독창적 산업도시관광 이미지 구축으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백현조 의원(대표발의)

기후테크 클러스터 조성 규정

기후테크 테스트베드와 클러스터 조성으로 실질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투자조합 결성 등 금융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기업유치 및 육성에 기여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 조례 안대룡 의원(대표발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개선 사업 추진

청소년들에게 마약김밥 등 마약에 대한 경계심을 낮추는 용어의 무분별한 접근을 막고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안전하고 건전한 교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눈에 띄는 조례



제262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 울산광역시 자동차전문정비사업자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권태호 의원(대표발의)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

지원 대상을 자동차전문정비업에서 자동차관리업 전체로 확대하고 자율주행자동차 보급 확산 지원과 자동차 안전 점검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한 교통문화 확산과 자동차 사고 예방에 이바지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교육청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김종섭 의원(대표발의)

관내 학교 교육활동으로 전통무예사업 지원

우리 고유의 문화적 가치를 지닌 전통무예를 학교 교육활동으로 접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문화적 소양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소방시설 등에 관한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김기환 의원(대표발의)

동일 신고인 포상금 한도액 등 명시

소방시설법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하여 신고 대상 확대 및 지급기준 표준화로 신고포상제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울산광역시 재난대응 군 장병 안전 지원 조례

김기환 의원(대표발의)

재난대응 현장 동원 군 장병 활동 지원

재난 발생 시 군 장병의 재난대응 인력 동원으로 안전사고 예방과 포상을 규정하여 군 장병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여 재난 대응의 안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이장걸 의원(대표발의)

재향경우회 육성 지원 사업 규정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범죄예방 홍보, 청소년 선도 등에 기여하고 있는 퇴직 경찰공무원 단체에 지역자치단체 차원의 공익활동 지원으로 지역 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울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진혁 의원(대표발의)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화분, 수목 등의 재료와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수목원 교육 활성화 및 이용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교육청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 권순용 의원(대표발의)

교육기관의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 규정

전용주차구역의 안전시설 설치기준을 명시하고 설치 경비 지원을 명시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 보호와 교육재산을 지키고자 함

■ 울산광역시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

문석주 의원(대표발의)

안전교육계획 규정하여 학생들의 사고 예방

계획수립과 실태조사, 교육 전문기관 위탁 등 학생 대상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학생의 안전한 이용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동아리 육성 및 활동 지원 조례

문석주 의원(대표발의)

체계적 관리의 제도적 기반 마련

동아리 활동의 기본계획과 활성화 위원회 등 학생동아리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학생들의 진로와 흥미, 적성에 맞는 동아리 활동으로 창의성 신장과 인성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안대룡 의원(대표발의)

통학 지원대상과 안전교육 명시

통학 여건 및 차량 운영 실태조사와 통학 지원대상 등을 규정하여 통학 과정의 안전 문제와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여 안정적이고 공평한 교육 접근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손명희 의원(대표발의)

보건의료인력 지원 근거 마련

보건의료인력 지원사업과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여 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권태호 의원(대표발의)

민간정원 활성화 지원 사항 규정

민간정원 공개 및 지원과 시민정원사, 정원 교육 및 행사 운영으로 정원 문화 활성화로 시민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을 보완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백현조 의원(대표발의)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양자산업 지원

양자산업의 범위를 상위법령에 맞추고 실질적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양자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김종훈 의원(대표발의)

보험료 지원과 범죄 피해 예방 지원 등 규정

소상공인 보험료 지원의 대상을 보험료 전반으로 확대하고 범죄 취약 지역의 소상공인을 위해 물품 및 지원 장비의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사업환경을 조성하여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함

제263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 울산광역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안대룡 의원(대표발의)

방위산업 육성 사업 및 재정지원

방위산업 육성 계획 수립과 지역 기업 방산 진출 제도적 기반 마련하여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방위산업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세계유산 반구천의 암각화 보존 관리 및 활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대룡의원(대표발의)

심벌마크, 캐릭터 활용 상품 개발 등

세계유산 상징물 등 활용 사업 시행 및 위탁 근거를 규정하고 홍보물과 기념품 제공 근거를 규정하여 세계유산 가치 확산과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인공지능산업 육성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백현조 의원(대표발의)

인공지능산업 육성과 지원 정비

인공지능기본법을 준용하여 정합성을 확보하고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도입 등 정책 분야의 실효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인공지능산업기반 노선버스 우회전 사각지대 해소 및 보행자 안전지원 조례 천미경 의원(대표발의)

인공지능 보행자 감지 장치 설치로 보행자 안전 확보

우회전 보행 사고 치사율이 높은 노선버스의 사각지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인공지능 보행자 감지 장치 설치를 지원하여 교통약자의 안전을 증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영해 의원(대표발의)

홍보물 제작 및 상품권 등 제공

연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 개최, 독서 문화 진흥행사 홍보용 홍보물과 행사 참가자 기념품의 상품가액 등 제공 물품의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영해 의원(대표발의)

지역서점 인증요건 완화로 서점 활성화

지역서점 정의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인증요건인 영업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여 경영 초기 안정화로 지역 서점 활성화를 도모하여 시민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함

제264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 울산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수일 의원(대표발의)

유족의 배우자 의료비 지원 확대

현재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자인 독립유공자 유족의 배우자를 조례에 명문화하여 사업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여 독립유공자의 예우를 강화하고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의정단신

교육청 조례 용어 개정 갈등 중재



2월 4일 교육청 조례 개정안 용어 중 이견이 이어져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의견을 조율하였다.

조례 용어 중 노동자와 근로자 사용을 둘러싼 이견이 이어져 의장 주재 협의 결과 본회의에서 상정을 보류하고 해당 조례안 처리 방향을 신중히 검토하였다.

설맞이 위문품 전달



2월 9일부터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했다.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위드우리요양원 등 사회복지시설 7개소를 방문하여 생활용품을 전달하였다.

한편, 시의회에서는 매년 명절마다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위문 격려를 이어가고 있다.

의정단신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촉장 수여



2월 24일 울산광역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장을 수여했다.

학계·법조계·언론계 등 민간 분야 인사 7명
으로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인사로 구성되었
으며,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이성룡 의장은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자문을
통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로 나아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3월 11일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결산검사위원은 천미경, 이영해, 문석주
의원을 비롯해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으로 구성
됐다.

이성룡 의장은 “지난 한해 동안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점검하는 중요한 절차를 엄정하게 점검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의정단신

2026년도 지방의회 맞춤형 직무연수



4월 6일 의회사무처 직원 및 의원 등 60여 명을 대상으로 AI 실무 활용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김석명 의회사무처장은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시대에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챗GPT 등 지능형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활용하여 직무 역량을 키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9대 의원 당선인 오리엔테이션



6월 11일 당선인 22명과 간부 공무원이 참석하여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다.

당선 축하 인사를 나누면서 다음 달 출범하는 제9대 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김석명 의회사무처장은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분야에서 의원님들의 동반자가 되어 성과를 성실히 뒷받침하겠다”고 하였다.

안녕하세요, 저는 **바르미**예요 !

태화강 십리대밭에서 태어나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며
더 나은 울산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어요!

머리 위 대나무엔 시민들의
소망이 담겨 있고,
죽순 스카프는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다짐이에요.

대나무처럼 바르고 곧은
의정활동을 약속드려요!



블로그



유튜브



의회홈페이지



인스타그램



카카오채널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울산시의회 사람들

울산시의회 소식지 '울산시의회 사람들'은 시의회의 의정 활동과 다양한 생활 정보를 수록하여 연 2회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의정 활동과 관련하여 더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은 울산시의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무료 구독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울산시의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식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시의회 홍보담당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통 권 제134호
발 행 일 2026년 6월
발 행 인 이 성 룡
발 행 처 울산광역시 의회사무처
홈 페이지 www.council.ulsan.kr
문 의 사 항 052.229.3374



울산광역시의회
ULSAN METROPOLITAN COUNCIL